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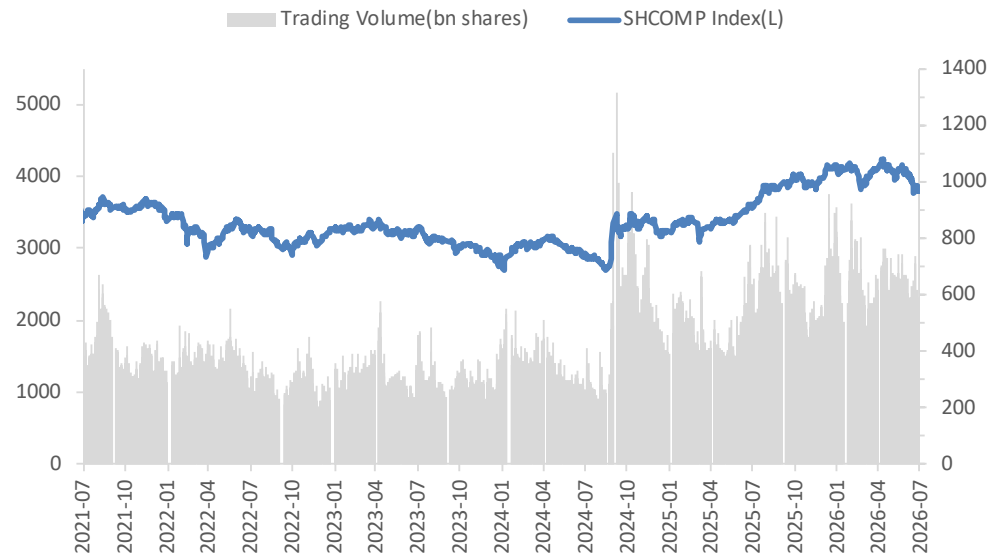
8월 중간실적 발표 본격화, Unitree Robotics 청약으로 로봇 섹터 심리 회복 예상

7월 A 주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시장 스타일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성장 섹터는 밸류에이션 조정이 지속된 반면, 방어적 자산은 상대적 우위를 확보했다. 주요 A 주 지수간 차별화도 두드러졌다. 상해종합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창업판(ChiNext)과 과창판(STAR Market)은 더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었다. 7월 시장 유동성은 두 가지 주요 이벤트의 영향을 받았다. 1) 창신반도체(CXMT, 688855 SH)가 7월 27일 과창판에 공식 상장했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동성 흡수 효과가 발생하여 반도체 섹터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다. 2) 중지쉬창(300308 SH)이 홍콩 증시 상장 첫 날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전세계 AI capex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촉발됐다. 이에 따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컴퓨팅 하드웨어 섹터(광통신, CPO 등)가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

AI 섹터는 예상된 차별화와 새로운 모멘텀이 공존하고 있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Capex 증가세의 소폭 둔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주가가 높은 테크주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OpenAI는 8월 1일 차세대 주요 모델군인 가칭 Astra를 공개 예고했다. 해당 모델은 더 낮은 컴퓨팅 비용을 기반으로 기술적 돌파구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섹터의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AI 애플리케이션과 지능형 에이전트로 점진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7월 30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경기 대응적 조정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강조되었다. 여기에 육아 보조금 도입과 주요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정부는 시장의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뿌리 깊은 지역 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원유와 귀금속은 계속해서 위협 심리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고평가된 성장 섹터들에서 레버리지 물량 출회가 지속된 반면, 금융기관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함에 따라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는 테크 섹터에서 저평가된 소비재 섹터 및 고배당 자산으로 이동했다. 8월에는 집중적인 중간 실적 발표가 시장의 주된 초점이 될 것이며,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조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Unitree Robotics는 8월 10일 IPO 청약을 시작할 계획이고, 이는 로봇 섹터의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준의 정책 기대감, 글로벌 IT 기업들의 재무 보고서, 중동의 반복되는 지정학적 긴장이 위험 선호도를 계속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사는 균형 잡힌 전략을 고수하고, 테크 섹터의 테마성 투기를 피하고, 반기 실적 성장의 확실성과 밸류에이션 소화가 완전한 이워진 하위 섹터 주도주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유아동 및 식음료 섹터 내 기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주와 고배당 자산 역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상해종합지수 수익률



주: 발간일 2026.08.07

자료: Bloomberg, Yunta Investment Consulting